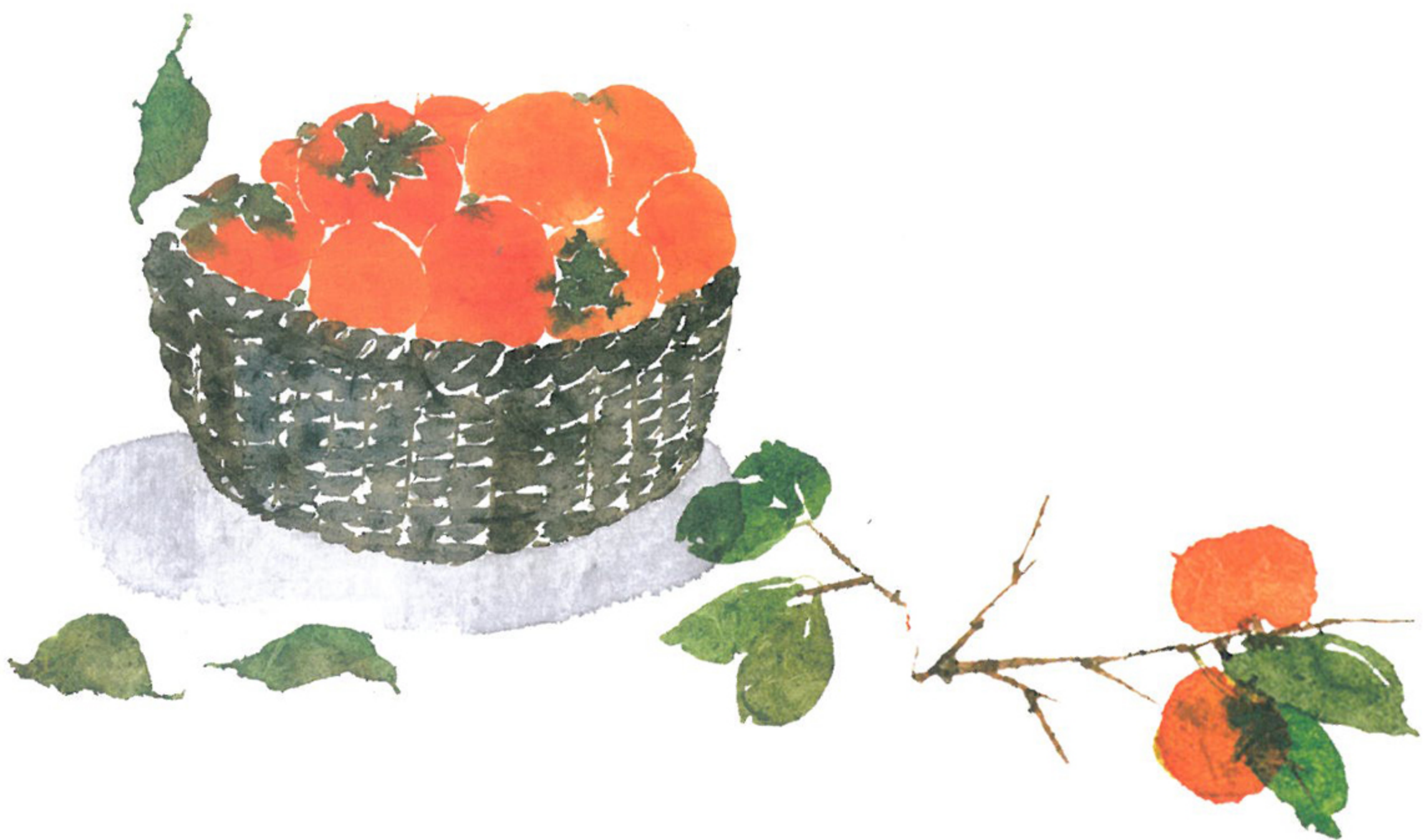


가을 2015

PWM

SHINHAN PREMIER WEALTH MAGAZIN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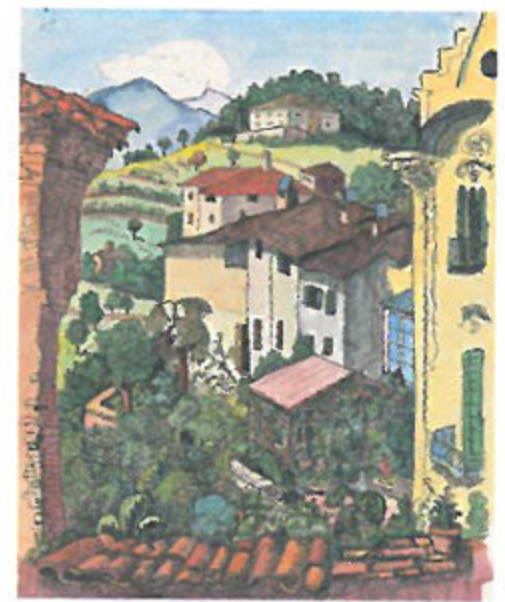
전설을 만나다

〈헤세와 그림들展〉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

헤르만 헤세의 명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신개념 컨버전스 아트 전시 〈헤세와 그림들展〉. 지난 5월 '헤세의 초대'라는 부제로 시작된 이 전시는 9월 1일, '헤세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다른 시각으로 전시를 재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문학가지만 그림을 사랑한 헤세가 남긴 수많은 그림을 재해석해 따뜻함과 휴식을 통한 감성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유리알 유희〉 등과 관련한 채색화, 초판, 사진, 유품 등 영국 로이드 보험사 가치 평가 추정액 1,000억 원 상당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배우



© 〈의자, 책과 함께〉, 1921



© 〈클링 조어 발코니〉, 1931

에서 공연 프로듀서로 변신한 김수로가 전시 프로듀서로까지 영역을 넓혀 기획한 전시로 눈길을 끈다. 일시 11월 1일까지 장소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의 전설〉은 상식을 파괴한 독특한 인물 표현 방식으로 신비에 가득 찬 예술가로 기억된 모딜리아니의 예술과 삶을 총체적으로 조명해보는 전시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알게 될 때 당신의 눈동자를 그릴 것"이라고 말한 모딜리아니의 일관된 소재는 '인물'이었다. 삶의 고통과 남녀 간의 사랑 감정을 열정적으로 느끼며 표현하고자 한 모딜리아니는 인간의 심오한 내면세계를 자신만의 양식을 통해 화폭에 담으려 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약 40여 점의 그림만 남아 희귀성이 높은 것은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의 작품들을 한곳에 모은 보기드문 기회다. 그가 추구한 인류애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10월 4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 〈레오폴드 슈르바주의 초상〉, 1918년, 61.5x46cm, 캔버스에 유화, 아테네미술관, 핀란드, Bridgeman Images

© 〈앉아 있는 잔스 에뷔테른스〉, 1918년, 55x38cm, 캔버스에 유화, 이스라엘박물관, 이스라엘, Bridgeman Images

박노해 사진전 〈디레 디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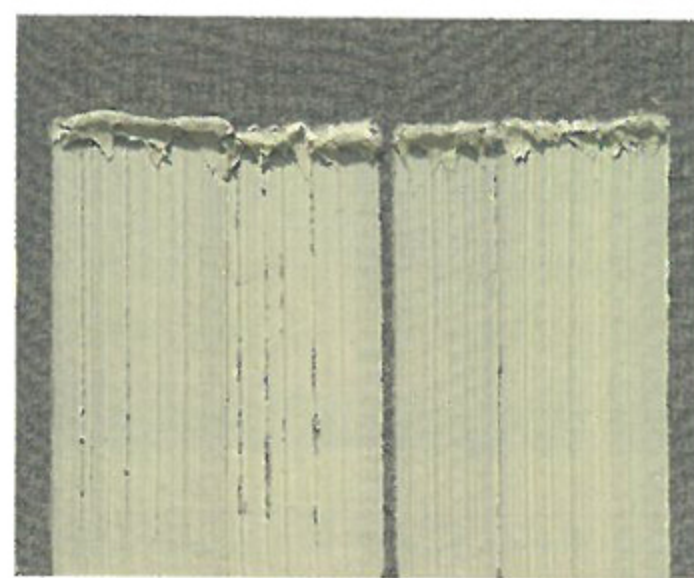
© 〈'둘씨' 나무 앞에서〉, Orchha, Madhya Pradesh, India, 2013.

인도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모인다는 종교의 성지이자 세계 여행자들이 꿈꾸는 나라이며, 좋은 죽음을 맞고 싶은 순례자들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는 극단의 두 얼굴을 가진 땅

이다. 히말라야 만년설산과 라자스탄 사막이 동시에 펼쳐지고, 핵무기를 갖고 성장 질주를 하는 첨단 IT 산업의 도심에 느릿느릿 암소가 걸어가고, 아시람의 고요한 명상 속에 최악의 카스트인 불가촉천민과 빈민들이 신음하는 나라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은 그 모든 걸 지탱하는 위대한 민중, 대지의 노동과 소박한 살림의 순간들을 담아냈다. '디레 디레'는 인도 말로 '천천히 천천히'다. 작가는 전시 제목처럼 두 얼굴을 가진 인도 안에서 발견한 여유를 사진 속에 담았고, 글로 표현했다. 숨 가쁘게 달리던 발걸음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사진전, 무료 관람이라 더 따뜻하다.

일시 2016년 1월 13일까지 장소 라카페 갤러리

하종현 개인전



© Ha Chong-Hyun, 〈Conjunction 96-73〉, 1996

하종현은 두꺼운 물감을 촘촘히 짜인 마대 뒷면에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그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간결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접합〉 연작은 밀가루, 신문, 종이, 철조망 등과 당시 한국전쟁 이후 미군 군량미를 담아

보내던 포대 같은 비궤미술적이고 비궤전통적 매체들을 통해 다양하게 접근한다. 당시 시대상을 빚대어 보면 매우 일상적이며 동시에 정치적 요소를 함축하는 소재들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보수적인 미술 경향을 부정하며 동시에 작가의 청년 시기를 둘러싼 어려운 사회상을 반추한다. 그의 단색화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미에서 강조된 중성적이고 차분한 색깔과 요소들을 새롭게 변용한다. 기존 회화의 고정관념을 깨고 추상회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하종현의 예술 세계로 초대한다. 일시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